

속 기록

- 회 의 명 : 제402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5. 7. 25(금) 14:00 ~ 17:56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40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각다원예술팀 오석준 대리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11인 위원 중에 10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배운 주 위원님께서도 오고 계십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5년 소위원회 소위원장 위촉 및 운영계획(안), 2025년 시각예술창작주체 프로젝트II 백남준 아카이브 구축 및 출판을 위한 사전연구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 2025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 2025년 문화예술 연수단원 지원사업 잔여예산 활용계획(안) 등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8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6월 20일 개최한 제401차 전체회의의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어서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하십시오.

성기숙 위원 : 굉장히 답습니다. 지금 정부 교체기에 놓여있기도 하고, 무더위에 우리 사무처에서 여러 정책 변화도 있는데요. 굉장히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2026년 예산확보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도 예외 없이 일주일 전에 회의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본이 어제 5시 30분에 왔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이미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했는데 또 보내주셔서 2부를 출력해서 왔는데요. 7월 31일이 되면 1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1년간 회의 때마다 이런 불편이 있었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자료의 기간 내 자료송부 요청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회 활동을 해 보니까 저는 11월과 12월이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서 그때 집중적으로 바쁘고 나머지 기간은 여유가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위원회의 업무라는 게 1년 내내 바쁘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차 회의조. 6월 전체회의에서 제가 과다 발언했다, 저도 속기록을 다시 봤는데요. 전담심의제 비상임 위원들의 참여 건과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중에 향후에는 위원들의 발언 총량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균등하게 발언의 기회를, 시계를 옆에 갖다 놓고 체크하면서 회의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며칠 동안 심적으로 괴로웠는데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들의 토의를 통한 합의제 구조이고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바뀐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향후 전체회의는 각 위원별로 발언 총량제를 적용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실지를 듣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도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요. 총량제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한 분이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오랫동안 하게 되니까 회의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는다. 그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3분 내로 일단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반복하면서 가자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3분 정도로 해서 제가 시계를 갖다 놓고 재지는 않지만 그 시간 정도가 되면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회의자료 일주일 전에 배포에 대해 사무처에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최종본은 직전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1차본을 먼저 보내드리지 않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보내드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총 12건의 안건이 있었고 9건은 지난주 금요일에 보내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전략소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렸기 때문에 그런 안건은 추가해서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회와 사무처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일주일 전에 완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보내드리고 그 이후의 안건은 추가적으로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라는 것이 일주일 전에 딱 끝나고 그 뒤에는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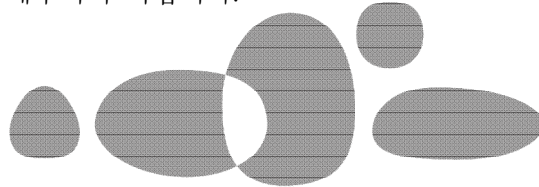
성기숙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성기숙 위원 : 지금 김성범 팀장님 말씀대로 일주일 전에 자료가 왔고요. 후속으로 온 게 반복적으로 매달 회의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전략소위원회도 조금 미리 해서 정상적으로 회의자료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매번 이런 식으로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접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위원장님의 발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민간자율로 합의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경영전략소위원회를 2시간 했습니다. 그날 발언하신 분도 있고 발언을 하나도 안 한 분들도 있고요. 제가 1년간 회의를 하면서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부담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언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발언을 하고 싶지 않은 자의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안건이나 회의자료를 충실히 보고 무엇을 파악해야만, 숙지된 상태에서 질문도 하고 발언도 하는 겁니다. 이런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에 대해서 발언을 제한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절대적으로 제약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합의제로 운영하는데 독임제로 제가 운영한 적도 없었고요. 합의제로 모든 것을 운영했었고요. 다만 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운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방법론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 결 사 항



한국문화예술회의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44호 2025년 소위원회 소위원장 위촉 및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소위원장 위촉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최종 결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영전략소위원회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의 소위원장 결정 건, 그리고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1번 2025년도 소위원회 구성 경과는 이미 보고가 된 내용이니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위원회 소위원장 관련입니다.

현재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경영전략소위원회 소위원장은 김진각 위원님,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소위원장은 구문모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기로 했고요.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소위원장을 두지 않고 회의를 할 때마다 맡기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 소위원회 운영계획 관련입니다.

경영전략소위원회와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의 운영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술가치에 공감하는 문화예술 후원인(기업) 확대 전략 수립 및 그에 따른 캠페인 기획 및 지원사업 운영,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디지털 기반 후원 모델 발굴 및 연계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현장성과 대중성을 지향하는 아르크웹진 콘텐츠 활성화

내용으로 운영과제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래 추진일정은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 소위원회 운영계획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고 오늘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경영전략소위원회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소위원장 결정의 건. 그리고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드리는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서승미 위원 :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는 제가 참여하지 않아서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르코웹진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셨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부분은 누가 설명을 드릴까요? 소위원장님이 설명을 드릴 수 있나요?

구문모 위원 :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웹진이 발행되었는데요. 격주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다고 해서요.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그전에는 편집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여를 안 했는데 기획을 할 때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는 웹진의 내용이 정책 위주로 돼서 대중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번에는 글을 작성하는 분이나 자료를 수집해서 내보내는 측면에 있어서 좀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과 기존 실무진들이 숙의를 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국민 소통을 자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김진각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원회의 운영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외부에 나가는,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 소위원회에서 의논을 했거나, 논의를 했거나 하는 내용들은 나가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필터링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다듬어서 나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놓쳤다가 최근에 이 내용을 하나 봤는데요. 누가 외부에서 얘기해줘서 저도 확인했는데요. 저희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기업문화재단, 민간공익법인이 문화예술 쪽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지표도 개발하고 모형도 개발하고 관련해서 용역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를 할 때 용역 결과가 나오고 기여도 조사결과도 연말에 발표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술후원·홍보센터와 사무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논의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예술후원·홍보센터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기업문화재단의 문화예술후원기여도 3배가 늘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신뢰도, 오류 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절차적 문제는 이 보도자료가 사실 나가기 전에, 기업문화재단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사안이고요. 예술위원회가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는 기업문화재단을 평가한다는 게 적절한가? 문

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런 논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룬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문화재단, ○○문화재단이 가장 높은 양적, 질적 기여를 했다는 것을 소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발표했는데요. 이 문화재단은 다 아시겠지만 대중예술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화재단입니다. 이진 순수예술 쪽, 아르코와 그렇게 접점이 많지가 않은 기관입니다. 창작뮤지컬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것은 이 문화재단의 전체 포션을 보면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단이 가장 기여도가 높다고 하는 게 신뢰도가 있는 조사인가? 오류에 대한 문제도 짚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외부에서 봤을 때, 물론 그 문화재단은 대단히 좋아하겠죠. 그러나 외부에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문화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 권위 있는 공공예술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는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짚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문화후원지수 관련한 것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와 같이 논의한 게 아닌가요? 사무처장 어떻게 된 건가요? 같이 협의를 했던 사안이 아닌가요?

김진각 위원 : 저희 소위원회를 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논의한 게 작년 12월 회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요.

정병국 위원장 : 저는 당연히, 우리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를 두었던 것은 지금 지원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의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서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소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자는 논의가 돼서 했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서 결과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당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된 것이죠?

구문모 위원 : 저도 뭘 따진다는 것보다도 김진각 위원님의 말씀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와서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우리가 뜨겁게 회의를 했거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진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그것을 논의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논의가 되었는데 결국 보도문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장은 경위를 알아요? 지금 예술후원·홍보센터장이 참석을 안 했잖아요.

송시경 사무처장 :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것은 저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는 당연히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소위원회의 주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145호 2025년 시각예술창작주체 프로젝트II 백남준 아카이브 구축 및 출판 위한 사전연구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이 온라인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백남준 아카이브 구축 및 출판을 위한 사전연구 지원사업은 백남준 서거 20주년,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백남준 작가 아카이브 구축 및 출판을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려는 가운데 사전연구 계획을 수립할 연구팀을 모집하는 공모였습니다.

이번 공모는 총 4개의 팀이 신청했는데요. 그중에 ○○○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팀이 선정되게 된 주요 배경은 사업을 수행할 아키비스트들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갖춘 주요 아키비스트 3명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의를 통해서 선정되었고요. 오늘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발표를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심사위원 심사평에 “조건부 선정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크게 아카이브와 출판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었고요. 신청자격에 백남준 전문연구자와 아키비스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를 하였는데요. 당연히 ○○○ 연구팀도 그렇게 인력을 구성하기는 했으나 선정목록에 보시는 것처럼 예비후보1에 있는 ○○○ 교수팀과 조금 비교를 했을 때 ○○○ 교수팀은 아키비스트 연구진에 상대적 강점이 있고 다른 팀에는 백남준 전문연구자 그룹에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도 하나씩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선정되는 팀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요. ○○○ 교수팀을 뽑으면서 백남준 전문연구자를 참여인력으로 보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김미라 위원 : 저는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결과를 보게 되면 ○○○ 교수나 ○○○ 교수님 모두 다 학술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어서 두 분의 팀 중에 어떤 팀이 되더라도 아카이브 연구를 잘하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은 갑니다. 제가 그냥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백남준 아카이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게 되면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고 백남준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관련 기관들이 있어서요. 저희 아르코에서 이 연구를 하면서 자칫 배타적인 상황이 돼서 이 기관에서 “니 일이네, 내 일이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백남준이라는 작가의 작품 연구를 함께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초석을 다져서 세계적인 다른 기관에서의 백남준 연구와 소통을 할 수 있게 우리 내부에서도 힘을 잘 모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연구의 과정에 자문을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아트센터나 문화재단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배려하셔서 같이 만들어가는 연구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질문 겸 의견인데요. 지금 김미라 위원님 말씀처럼 이왕에 저희가 의결을 해서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구요. 외부에서도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물어보길래 아는 범위 안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바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심의위원으로 5인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잘 아시고 열정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신 김미라 위원님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전담심의위원이신 이윤희 사무처 전담심의관님은 참여를 하셨어요. 김미라 위원님이 심의에 참여 안 하신 어떤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초본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9쪽인데요. 심의기준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시공모사업은 아니고 연구에 특화된 프로젝트 중심의 공모 및 단건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심의기준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문예진흥기금 심의기준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시각예술에서 백남준, 우리가 다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의결을 했고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기존 문예진흥기금 카테고리별로 지원하는 사업 외의 특화된 연구프로젝트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만약 시각예술 외에 무용이든, 음악이든, 전통예술이든, 문학 등 다른 장르에서 수요가 있을 때 같은 맥락으로 이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13쪽에 보면 해당 사업의 지원취지에서 보면, 이게 문화예술위원회와 백남준 아트센터, 게티 인스티튜트 등 국내외의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예산이 1억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국내 또 해외의 게티 인스티튜트라면 LA 산꼭대기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죠? 저는 게티 센터도 가보고 성격도 아는데 백남준 아트와 관련해서는 게티 인스티튜트보다는 LACMA가 기관의 성격이나 정체성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9,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국내외 유관기관하고 협력 업무를 어떻게 할지? ‘역할분담’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 장다운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시고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경우에는 이 사업이 시각예술창작주체 잔여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시각예술창작주체사업은 지난 가을에 전담심의 적용 사업 공고를 띄울 때 전담심의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도 그 틀을 지키면서 인원이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심의기준과 관련해서는 공고문에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공통 기준을 담고 있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정시공모사업들도 마찬가지로인데 그 사업에 특화된 주요 세부기준들을, 공고문에 나와 있는 세부 평가내용을 사업 특성에 맞게 점검할 수 있는 세부지표들이 있습니다. 세부 작성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심의·토론이 진행되고 평가가 진행되는 부분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사실상 정시공모에 있던 일반사업은 아니고 기획된 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다른 장르에서도 진행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답변을 다 드렸어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아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말씀하세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그리고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국내외 주요기관, 백남준 아트센터를 비롯한 주요기관 그리고 해외 게티미술관 같은 곳과 어떻게 협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예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올해 수행하는 것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출판까지 하겠다.”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다지고 자료를 상호교류하고 현황을 같이 진단하고 향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억 원이라는 예산 안에서도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LACMA도 굉장히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협업을 하고 싶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게티미술관을 방문할 때 같은 지역에 소재해 있는 LACMA도 한번 방문해서 협력을 같이 할 수는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일단 타 장르도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사업제안을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요. 역시 이 안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게티미술관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전에 김미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대로 백남준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거의 지지부진했고 어디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백남준 아트센터가 경기도 도립으로 되어 있고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아트앤티크, 비디오아트의 창시자라고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경기도립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산도 한계가 있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또 백남준 기념사업재단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거의 이름만 있고 이사진만 있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유족과 관계가 안 좋다보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백남준 아트센터와 백남준 기념재단하고 함께 협의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100주년이 되는데 일단 백남준 기념사업재단에서 100주년은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7년 남았는데 뭘 할 거냐?” 이렇게 지휘된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장기적인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아르코가 해 주면 어떡냐?” 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또 백남준 아트센터도 “아르코에서 시작해 주면 적극 협조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던 것이고요. 사전에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게티미술관을 선정하게 된 것은 그분들과 다 협의를 해서 게티미술관이 해 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 이유인 즉은 세계 미술 관련 기관 중에서 아카이빙과 연구가 가장 충실하고 공고하게 연구진이 잘 되어 있는 재단이다. 거기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줄 것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월에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더니 의외로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느냐?”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7년의 기한을 두고 일차적으로 향후 어떤 연구·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예비조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조사를 해서 오게 되면 내년 예산에 더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연구 결과물을 내자고 했고요. 다행히 게티미술관과 협력이 잘 돼서 MOU까지 체결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라 위원 : 성기숙 위원님께서 “왜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심의기준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으로 지난 5월에 이 사업에 대한, 잔여 예산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올렸을 때 심의기준에 대해 꽤 오랜 시간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때 장다운 팀장께서 “이 사업은 창작지원 사업의 잔여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것은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5월에 토론된 부분 중에 상당부분을 반영해서 공모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이번 심의기준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의위원 참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 이 사업도 역시 시각예술 창작지원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담심의위원 풀에 계신 5인이 다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특별하게 이 사업에 한해서만 참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은 “전담심의를 제가 왜 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단독방에도 올렸던 게 있는데요. 2024년 10월 24일 TF 회의록에 보면 전담심의회에 대한, 저희 위원회 참여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토론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간 의견에 따라서, 제가 이것을 찾아냈는데 없어졌는데요. 저도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발언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4년 10월 21일 2차 TF 회의록을 보면 “비상임위원이 전담심의회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다른 전담심의위원에 대한 추천권까지 갖는 경우가 공정성에 위배됨을 생각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는 위원들의 자율권으로 하기로 저희가 정리했고 저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추천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전담심의위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심의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런 결과로 백남준 아트센터 심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다른 분들 발언이 없으시면 제가.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시죠.

성기숙 위원 : 지금 김미라 위원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1차년도 사업이 백남준 아카이브 구축 및 출판을 위한 공동연구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심사위원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비상임위원이 들어가도 좋지만 지금 말씀처럼 우리 김미라 위원님은 그런 이유에서 안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위원 심의에 참여하는 분들은 나름의 입장과 논거로 참여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아카이브 구축 및 출판을 위한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성격이 우리 서초동에 있는 예술자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르별로 학예연구사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백남준의 아카이브 구축이고 이것이 출판이나 조사·연구가 되면 그 연구물이 국립예술자료원과도 연동될 것일 수도 있어서 예술자료원에 있는 전문인력분들도 심의에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심의는 별개고요.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성기숙 위원 : 심의 말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병국 위원장 :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9월에 1차로 연구진이 게티미술관을 방문하거든요. 그때는 기록원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당연히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논의를 한 것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심의기준은 제가 여쭙본 게 저희가 분야별 전담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준보다 이게 정교하거나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글썄요. 그것은 타 장르까지 기준을 ‘옳다.’, ‘안 옳다.’ 직접 말씀하시기 보다는 해당 장르위원께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존중해 주시고요.

구문모 위원 : 지난 회차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배경 등을 얘기해서 논란이 되었고요. 이번에도 사실 발언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으니까요. 질문할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있게 딱 짚어서 얘기가 꺼려져서 여태까지 안 했는데요. 혹시 이런 것은 어때요? 이왕 사업이 선정되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구가 끝나고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나오니까 일단 제출된 사업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공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언제든지 공유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보시는 거죠.

구문모 위원 : 그러면 제가 요청을.

정병국 위원장 : 뭐가 민감하세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다른 사업과 별개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구문모 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적으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요구를 하세요.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다른 사업과 동등하게 사업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고요. 그리고 의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문모 위원 :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부족하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요구를 하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

구문모 위원 :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공공성이 있는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기초연구에 확대해서 더 보완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미라 위원님께서 나중에 코멘트를 하셨는데 미술인들의 참여.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공유.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네트워크. 이렇게 보면 국내외에서 아마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 심의기준에도 기대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이 기대효과를 유심히 봤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속 사업이 있을 테니까 사업제안서를 제가 보면 이것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면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것은 언제든지. 장다운 팀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자료는 바로 제공해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세요. 우리가 하는 사업치고 공공성이 있지 않은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개인적인 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합의제가 필요한 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죠.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성기숙 위원 : 이 건과 관련해서 제 질문의 취지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구문모 위원님도 이 사업이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드렸고 발언을 한 것인데요.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목소리가 높아졌나요. 죄송합니다.

성기숙 위원 : 예. 좀 낮춰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146호 2025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안건 제1146호 2025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단원으로 근무한 청년인력이 예술현장에서 정규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임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고용 안정성과 지속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공모에는 총 51개 단체 61명의 연수경력자가 신청을 했고요. 이중에 44개 단체 51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총 지원결정액은 2억 9,700만 원이고요. 선정률은 약 86.3%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중에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지원금은 1년차는 월 최대 120만 원, 2년차는 월 최대 60만 원으로 하반기 6개월간 인건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심의는 총 8인이 참여해 주셨고요. 장르별 전문가 7인과 노무사 1인이 참여했습니다.

근로계약 사항과 예술인력 운영현황의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에서는 신청 1건에 선정 1건이 되었고요. 시각예술 신청 2건에 선정 1건, 연극·뮤지컬 신청 20건에 선정 18건, 무용 신청 5건에 선정 4건, 음악 신청 12건에 선정 11건, 전통예술 신청 3건에 선정 2건, 문화일반 신청 8건에 선정 7건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선정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조건부 선정이 된 9개 단체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내용이 있었어요.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 검증 이후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행정결격으로 제외된 7개 단체는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과거 단체모니터링을 했을 때 최저등급을 받은 사유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설명드리면, 정규직 전환단체는 민간단체였고 민간단체 32개소 그리고 주식회

사 형태의 15개. 그리고 국공립 1개 단체 등 고용 주체의 다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는 심사평에 관한 내용인데요. 심의위원회는 이 사업이 청년예술인의 경력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구요. 단기계약으로 끝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질문을 할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정갑영 위원 : 실적이 2017년부터 2024년으로 되어 있어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정갑영 위원 : 이 사업의 시작이 2017년부터 202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보통 고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전환된 사람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2년 단위로 추적 모니터링을 조사하고 있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나중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갑영 위원 : 그리고 여기 장르는 예술장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술인입니까? 아니면 예술단체 행정인력입니까?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현재 기준의 30%.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396명이 연수단원인데요. 거기에서 130명 정도가 창작실연인력 그러니까 예술가이고, 나머지 230명 정도가 기획행정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체를 보면 문화재단이나 민간을 포함하고 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술단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술단체의 비중이 훨씬 높고요. 나중에 결과 자료를 보고드릴 텐데요. 협회나 공공재단 쪽은 점점 지원을 낮춰가고 있는 추세고요. 예술단체들이 대부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예술단체의 지원이라는 이름 밑에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연수단원이 단체에 들어가서 행정.

정갑영 위원 : 제목이 ‘연수단원’ 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술인이 연수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예술단체. 그러니까 예술행정단체의 행정인력지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래 합당한 예술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목표에 합당한지가 궁금하고요. 이걸 아마 문체부가 하라고 하니깐 했겠죠. 그렇게 되었을 텐데 한 번쯤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사무인력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는 말씀이죠?

정갑영 위원 : 그렇죠. 분명히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인 지원인지? 예술인단체의 행정인력 지원인지?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당초 사업의 취지는 연수단원에서 창작실연인력이 국공립. 그러니까 예술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 단체들이 너무나 규모가 작고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예술행정이나 경영 인력지원에 대한 욕구가 계속 늘어나서 연수단원 사업에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목표설정을 해야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추적해서 고용이 되어있는지 아닌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설정해야 하고 예술인지원인지? 예술단체의 행정인력지원인지? 그다음에 공급한 것은 그냥 얼핏 봐도,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국회를 통해서 지원신청한 단체들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 ○○○○ 그때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행정인력도 지원하고 그 행정인력을 가지고 프로젝트 신청도 지원하고요. ○○○○○○○도 얼핏 그렇게 보이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 ○○은 이런 지원이 없으면 안 되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심의위원들도 똑같이 그런 우려를 제기하셨는데요. 대기업 재단이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냐?” 그런 지적의 의견이신데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연수단원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가서 연수를 받고 싶은 기관에 대한 니즈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만약 영세한 단체들 지원의 성격이라면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 ○○○○ ○○○○○○ 등 소수의 직장으로써.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수요자의 욕구와 정부의 방침하고 어긋나요. 수요자들은 가능하면 국공립단체에 와서 연수를 받고 싶고 잘 돼서 거기에서 계속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싶어 하고요. 선호도가 그쪽으로 전부 다 가 있고, 또 대기업이라든지 이러한 큰 재단에 가서 일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욕구하고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에 와서 “국공립은 다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요자들이 다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나눠서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방향을 한쪽으로 딱 잡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갑영 위원 : 여기 대구 ○○○○○○○도 있어요. 이것은 공공기관 아납니까?

정병국 위원장 : 처음에는 이게 ○○○○에도 있었다니까요.

정갑영 위원 : 대구 ○○○○○○○은 공공기관이고 이런 기관은 정규직을 확보하려면, T/O 확보가 이것을 지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갑영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 말씀과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문화예술에서 연수단 정규직 고용전환인데 이전에도 다른 명칭으로 유사한 지원이 있었잖아요. 전문인력지원.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다가 2024년.

성기숙 위원 : 맞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인력지원이라는 명칭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존에 진행된 사업의 명칭 변경이나 유사 사업의 사업이 변동된 것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이런 게 해소가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따 얘기가 있겠습니까만 노조에서 이런 문건을 오늘 주셨네요. 자료 요구가 과다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갑영 위원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메이저 단체와 마이너 단체를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50미터 앞서 출발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정성에서 출발선상이 다른 겁니다. 그런 게 혼재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처럼 제가 문예위에서 재교부하는 사업이랑 문예위에 공모하지 않고 지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추이도 보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파악되면 앞으로 어떤 해법이 필요하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인건비잖아요. 이것을 지원하는데 각 우량단체나 마이너 단체나 사업비 자체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행정 예산집행, 기획인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중복되는 지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염두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인력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현장에서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의 가치가 구현되는 측면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지원사업들이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분석이 되면 이것도 사무처와 공유를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배은주 위원 : 지금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이 아까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력지원사업도 전에 있었고 그런 사업들 이후에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사업이 진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고용전환 장려금 사업은 2017년부터 있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연수단원이라고 하면 연수직원 정규직이 아니고 연수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명 자체가 예술인들이 연수단원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취지를 가진 사업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명에 의해서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나 국공립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거기는 단원을 육성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예술인을 육성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 ○○○ 안에 예술인을 두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세팅을 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굳이 연수지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원사업을 굳이 뒤야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정말 실연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으로 전환해서 가는 방향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실연자들은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들이 무대에서 무대 활동을 하는 것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근태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출퇴근, 출결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까 모니터링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분의 예술 활동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근해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 예술인들, 실연자들의 업무 과업이나 근태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이 행정업무를 안 보더라도 정말 정당한 근

로 행위로 우리가 인정해서 전문 직종인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연수단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고용전환을 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성기숙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제 생각에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라 위원 :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원심의 결과를 보면 장르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어떤 사업이든 장르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되면 문제점 분석과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구 ○○○○○○ 같은 경우에는 연수단원을 공립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요. 무대기술인턴 같은 경우에 시설이 있는 곳으로 무대기술인턴들이 가서 연수를 받아야 하니까 공공기관들이 10여 곳 정도 섞여 있습니다. 연수단원 쪽은 없고 무대기술 파트에만 한정된 얘기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서 대기업의 문화재단도 연결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나 고용 유지율을 보면 많이 앞장서서 재원이 확보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문제겠지만 연수단원이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실적을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연수단원 쪽은 없고 시설을 갖춘 무대기술인턴을 파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지금 모든 재단들이 무대시설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설들에서 계속 이런 요청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병국 위원장 : 재단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정갑영 위원 : 아는데요. 재단을 끼고 무대전문인력,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가서 연수한다고 하면서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은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것을 연수한다는 이름으로, 일종에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의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그쪽에서 그것을 해 주면 좋은데요. 받는 것 자체도 꺼려하고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인력들은 그 요구를 하거든요. 이게 인턴십 제도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는데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이 있고, 어디든지 가서 그것을 발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다양해요. 그리고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예술인들끼리 모여서 공연단체를 하나 꾸리고 있는데 예술인들이다 보니까 전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하다못해 이런 걸 신청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행정인력이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이 자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만 해서는 방향을 정하기가 어렵고요.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르별로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미술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력이라고 하면 행정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큐레이터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큐레이터들은 전부 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 대신 연극 같은 경우 소극장이 많고 공연단체 소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욕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장르별로 환경이 다 다르고요. 현장에서의 요구사항들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선정하는 것 같아요.

정갑영 위원 :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잘 알려진 것이고요. 원칙은 위원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예술정책인데 예술행정인력을 양성하거나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술인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냐? 그런데 얼핏 보면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술인력처럼 보이지만 연수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체 행정인턴 인력지원이죠. 그게 만약 의미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분명히 하라고요.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기에 “예술단체의 크고 작은 단체들의 행정인력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도와주면 예술정책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취지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연수단원 정규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워딩 자체가 기본적으로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연수단원 사업으로 시작해서 영역이 확대되면서 연수단원이라는 사업명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창작실연인력으로 시작해서 기획경영, 행정인력까지 확대가 되었다가 지금은 무대기술인턴까지 확대된, 이것은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 일 경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명 자체가 연수단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예술가의 일 경험에 대한 니즈.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재단들도 재단이 출범했다고 해서 인력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런 인턴십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니즈들을 서로 조정해서 사업명의 변경이나 사업내용,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설명을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정규적으로 고용된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규적이 된 것이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이 사람이 대구 ○○○○○○의 직원이 된 건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미진 위원 :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10년간의 자료가 아니라 최근 3년간만 있어서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지만 지금 21개 단체가 중복적으로 계속 받았거든요. 한 번 이상 받은 단체가 21개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은 기존에 뽑은 사람들을 아직도 채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지 않나요? 21개 단체가 1번 이상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우려하신 사항까지 다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말씀처럼 장르적 특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술환경에 따른 장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예위 정도라면 정교하게 장르 특성까지 반영한 소위 맞춤형 지원 정책의 발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예술분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고 키워드로 보면 연수단원 청년인력 정규직 전환이잖아요. 이게 지자체별로 유사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매년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사업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맥락으로 있었다가 어떤 협회에서 전담해서 아웃소싱을 준 것이죠.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페이백. 그 협회가 아니라 그 지원을 받은 단체와 전문

인력 사이에서페이백 문제가 서울시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무처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문예위만 할 수 있는 기관의 정체성에 맞춰서, 예를 들면 무대기술 관련된.... 이게 포커스잖아요. 그쪽에 이런 전문인력 지원도 그렇게 기관 정체성에 맞춰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것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유사 지자체에 유사 사업지원과 관련해서도 파악과 검토를 통해서 문예위만의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전문인력지원 사업이 구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리서치 하셔서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들한테는 반드시 의미 있게 필요한 사업인 것은 같습니다. 전문직 고용도 어렵고 고정적인 급여도 예술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고용전환 하는 사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을 조금 더 러프하게 확대해서 실연자들은 실연자들대로 카테고리 가서 지원을 받고 무대인력 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업을 키워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은 고용전환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겁니다. 이미 월급은 그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그 월급의 50%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려금은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에 주는 것이 장려금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재단법인들은 장려금을 받을만한 역량을 초과한 분들이고 오히려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인력에 참여를 해야 하는 분들이니까 정말 실연자들을 위한 예술인. 또 행정업무를 고용할 수 없는 열악한 단체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일단 파트를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직, 예술단원 등으로 구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대상기관도 국공립이나 대기업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수의 장으로서 필요한 경우니까 그러한 부분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것도 나눠서, 아예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 구분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이 사업의.

장미진 위원 : 죄송하지만 연수가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맞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첫해에는 연수단원으로 해 주고요.

장미진 위원 : 지원사업은 따로 있고요. 연수단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사업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맞아요. 그 사업이라니까요. 그게 연계성이 있다니까요. 연계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수단원으로 처음에는 해요.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줘요.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첫해에는 50%.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현장의 수요자가 연수단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케이스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구분해서 사업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을 좀 연구해 보세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147호 문화예술 연수단원 지원사업 잔여예산 활용계획(안)입니다. 이어서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용전환 장려금 사업에서 지원신청 미달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잔액을 활용해서 연수단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2억 3,200만 원의 예산잔액을 활용해서 2025년도 문화예술 연수단원 단체 중에 심의평점 우수단체를 1명씩 해서 총 22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추가 지원은 기존 장르별 선정비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문학 1명, 시각예술 3명, 연극 6명, 무용 2명, 음악 4명, 전통예술 3명, 문화일반 3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210만 원씩 5개월로 총 1,050만 원이고요. 채용인력은 기존 연수단원 조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서 연수단원 제도의 제도효과를 확장하고 청년예술인의 현장경험 확대 및 취업 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1차 공모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35페이지 보고안건 2025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1차 공모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28일에 공연예술대관료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고 그 이후에 주관처 공모를 해서 4월 25일에 주관처 공모 지원심의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5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접수를 받았고 그 이후에 45일간 심의를 해서 7월 15일에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제작비 중에 부담이 큰 대관료 일부 지원을 통해서 민간공연예술단체나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작품 창작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되고요. 지원내용은 대관료와 대관부대시설 사용료의 최대 90%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다는 개념입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최대 지원금액은 올해 26억 예산을 고려했을 때 1,500만 원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

액으로 최대금액 1,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원신청 접수 결과 963건이 접수되었고 가이드에 따라서 결격을 검토한 결과 중복을 제외하고 총 219건의 결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대비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복수혜 5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공지원을 받았던 단체나 개인은 신청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료 공연이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나가기는 했지만 필수 제출 서류의 누락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공연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연장 대관료로 지급했다는 계좌이체 확인증 등에 대해서 요건으로 제시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세급계산서만 제출했을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서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963건에 대한 신청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음악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음악이 거의 80% 해당되고 연극과 무용, 전통예술은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음악 중에서도 774건 중에 개인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전체 포션에서 개인이 63%인데 음악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 독주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실연자 중심의 지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봤을 때 대관료지원은 거의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수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지원심의 적격성 부분이나 증빙자료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부’에 해당이 됩니다. 일체 정도에 대한 판단은 없기 때문에 주관처를 포함해서 저희 팀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결격심의 부분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선정 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219건을 제외한 744건이 되고 공모배정 예산대비 건수로는 지원신청 대비 77.25%가 선정된 것이고 전체 지원신청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4%입니다만 219건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지원결정액은 최고액 1,500만 원 대비해서 약 65%가 지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월부터 8월까지 공연이 완료되었거나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지원신청서를 받았고요. 2022년도 예산이 50억 원이었을 때 2배정도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 받았던 배정예산과 건수를 비교해 보면 건수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공지원 쪽에서 받았던 부분을 제한으로 걸었다고 했을 때 아예 이 부분에 대한 요강을 보고 신청 자체를 안 했거나 혹시 몰라서 신청했으나 탈락된 것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평균 지원액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약 1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이 예산으로 봤을 때 218만 원 대비 2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었고요. 개별 신청액 대비 지원결정 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년차가 64.48%로 그때보다 높은 것은 최고지원액이 그 당시에는 3,000만 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으로 갔을 때, 1,500만 원으로 하면 65%로 볼 수 있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분야별 선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44건에 대해서 연극/뮤지컬 98건, 음악 632건, 무용 6건, 전통예술 7건, 다원예술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억 원 예산에서 약 10억 원 정도가 음악에 투여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표는 단체/개인별 선정 현황입니다. 연극/뮤지컬 98건 중에는 단체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음악은 개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은 상대적으로 신청건수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파악한 것은 역시 무용이나 전통예술, 다원예술 쪽은 공공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자생적으로 공연을 하는 건수가 확실히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 제한을 거니까 아무래도 신청건수가 낮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평균 지원액은 단체와 개인인데 합계를 쫓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극이 448만 원 정도가 되고 음악, 무용, 전통예술은 160만 원에서 190만 원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최고/최저 지원액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공연일수를 봤을 때 확실히 연극/뮤지컬 쪽은 최고로는 150일도 있었지만 인형극이나 특정 장르에 따라서는 2~3일짜리, 1일짜리도 있기는 있었

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무용과 전통 부분에서는 거의 1일에서 2일이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음부즈만 신청이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약 88건을 접수해서 53건에 대해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간 것에 대한 음부즈만은 2건 중에 1건을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계적인 판단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용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합니다만 저희 팀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너무 음악으로 편중돼서 이 부분도 장르별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별도 지원내역은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분야별 선정 현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의 선정건수, 선정비율, 지원총액이 현저하게 낮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이 3개 장르가 신청건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낮을까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이 통계로만 보면 “낮은데 어떻게 하나?”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문예위라고 하면 장르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혹은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신청건수가 낮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부족할 것 같네요.

장미진 위원 : 건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선정비율을 보면 대충봐도 연극이나 무용은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극 같은 경우 161건이 신청해서 98건이 선정이고 무용은 16건 중에 6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되었을 지가 조금, 음악 같은 경우 632건이니까 거의 70~80% 이상이 선정비율로 된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신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신청대비 선정한 것을 빼 나머지 실격된 219건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에는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219건의 결격사유를 우리가 알아야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용과 전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개인보다는 단체 중심의 지원이 많은데 아무래도 공공지원을 받지 않으면 예술창작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공지원을 1건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 지역재단을 포함해서 나갔거든요. 문체부 산하기관, 지자체 공공계열. 지역 같은 경우 보탭e를 통해서 확인을 다 했고요. 혹시나 모를까 해서 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을 때 “이런 지원을 받아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다 수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데요. 36페이지를 보시면 219건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 이 건을 다 합치면 226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2건이 걸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필수서류 제출 누락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구분에서도 개인·단체의 성격을 잘못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단체로 지원을 받고 이쪽의 대표자가 혹시 몰라서 개인으로 신청한 경우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걸려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자료 제출 누락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왔고 하나하나 말씀드렸을 때 모두 수공을 하셨습니다. 혹시 단체별로 연간 1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연계획이 있으면 그때 신청을 하시라는 안내를

다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이것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정결과를 표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시니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내용이 제한적이잖아요. 대관료. 그중에서도 설치, 리허설, 공연, 철수대관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그 밖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만약 무용장르라고 하면 올해 무용 쪽의 신청과 선정된 것이 장르별, 세대별 어떤 분들이 지원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이진 다 연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전담심의 적용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창작주체, 창작산실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되는 문제라서 이런 것들이 비상임위원과 사무처가 같이 입체적으로 공유가 될 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새로운 지원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 오늘 문건 하나를 주셨는데요. 5년치와 3년치 자료요청을 다양하게 한 것은 이것을 입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파악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36쪽에 행정결격 사유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건바이건으로 다 해 놓으셨네요.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노고는 치하를 드리는데 저도 전담심의 적용 사업 심의 때 보니까 A그룹, B그룹 심의에 저는 다 들어갔습니다. A그룹, B그룹에서 사무처에서 문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류도 있었고요. 체크도 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처의 의도적인 회피라기보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파악해서 저는 전담심의 A그룹, B그룹에 다 들어간 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도 숫자적인 것의 오류나 누락.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사무처에서 정교하게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전담심의위원들과 같이 입체적으로 보면서 내용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 질문은 음부즈만 2건 중에 1건에 대해 대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그 음부즈만 내용이 궁금하고 예전에 들어왔던 음부즈만과 비교해서 현재 달라진 음부즈만의 형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표를 보시면 연극에서 단체가 141건, 개인이 20건이고 음악은 단체가 193건, 개인이 581건입니다. 저는 사실 이 수치로 보았을 때 느껴지는 것은, 음악 쪽이 유난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연극이나 무용은 단체의 형태로 팀워크가 되어야 공연이 올려지는 형태인데 비해서 음악은 개인독주회 형태가 많다 보니까 개인지원이 월등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음악이 왜 많은지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개인지원을 받는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연극이기 때문에 연극 쪽으로 보자면 연극 쪽은 개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없는 예술가들은 개인으로 넣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인력을 구성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르적인 특성들이 다 다른데 이 부분들의 중복성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구조로 갈 것인지에 대해 차년도에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부즈만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음부즈만이 1건 들어온 것은 음악 분야였는데요. 본인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수궁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프로그램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지원을 받지 못 하냐고 해서 답변은 “○○문화재단의 지원을 올해 받으셨다. 그래서 당신은 받을 수가 없고 모집요강에도 나와 있다.” 라고 답변을 처리했고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로 살펴봤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게 “지인 중에는 받은 사람이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 덕에 전

수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찾아내고 반영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 분은 본인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깊게 볼 수 있는 계기를 준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예술대관료지원이 지원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어려워서 신청건수가 이렇게 저조하지 않나? 이 요건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타 지원과 중복지원을 배제가 있다고 하셔서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그것은 저희의 방향이라서요.

배은주 위원 : 그러면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것을 중복 배제한다고 하면 다른 기금은 받았지만 그 기금 안에 대관료가 포함되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기금이 다 안 되는 것인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를 들어서 문예기금 연수단원 하나만 받은 단체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요건이 까다로운 거잖아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매우 까다로운 겁니다.

배은주 위원 : 매우 까다로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음악 같은 경우 이훈경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이 음악적인 공연을 올릴 때 단체 공연보다 수월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율의 차이가 벌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 지원 배제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단체의 입장에서나 개인예술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립성이 없으면, 수익이나 매출 증대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 현장 의견을 들었을 때 가장 우려했던 점은 예산이 2022년도 대비 50%가 줄었고요. 분명히 2022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나갔을 때는 선정이 되더라도 매우 지원금액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올해 선택과 집중을 해 보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방향을 넓혀 나가는 게 맞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힘들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창작지원에 해당되는 지원이 아니라면 좀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좁힌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좁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원신청서 한 장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관계약서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대관료를 납부했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등록증이 필요하고 공연장이 등록공연장인지 등 다섯 가지만 필요합니다.

장미진 위원 :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저는 선정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음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획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획사를 통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누구든지 신청이 수월해야 하는데 지금 팀장님은 간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필수 제출 서류 누락이 95건입니다. 100건 가까이가 서류를 못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자 구분에서 단체나 개인이냐를 잘못해서 20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신청하는데 양식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단체와 개인의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고요. 필수서류 누락 건에

대해서는 건수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일일이 “이것을 내세요. 저것을 내세요.” 라고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질문인데요.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대관료지원으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 리허설, 공연, 철수대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극장별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토월극장 등 단가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준화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서에 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직접 창·제작의 안무, 음악비, 출연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연하는 극장에 대한 무대 인프라 측면에서 지원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원사업의 효과성, 지원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항목별로 표준화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갖춰져 있지는 않고요. 극장에서 발행한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며칠을 공연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부분은 오버가 된다면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다지 그런 건은 없었는데 항목별로 표준화된 단가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성과는, 저는 이번에 느꼈던 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장르별 지원 비율이 어떻게 보면 공공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그랬던 게 공연예술 쪽에는 단체 중심의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실연자 중심 지원이 보완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통예술의 경우도 개인의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차이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사업 자체가 이렇게 편차가 심한 사업의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아요. 또한 2020년도의 기록을 봐도 거의 유사하잖아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 된다면 약간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통계치로 37쪽부터 쪽 해놓으셨잖아요. 무용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무용이 너무 홀대되고 있다는 측면이 아니고 반대로 대관료지원보다는 다른 지원사업에서 풍부하게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서 작성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소모에 대비해서 효과성과 지원했을 경우 받는 수혜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해석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고로 다음 해에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분야별로 지원액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연극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연극은 단체 최고가 967만 원이고 최저는 42만 원이고요. 음악에서 개인은 최고가 860만 원인데 개인 최저는 31만 원이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간 인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대부분 보면 연극/뮤지컬은 1,500만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신청금액이

오버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용과 음악, 전통예술 쪽은 총액이 1,500만 원으로 밀린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연극 같은 경우 대체로 공연일수가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이라고 하면 1,500만 원에서 65%가 적용되었을 때 최고액이 967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예산이 확대가 된다면 같은 프레임으로 갔을 때 최고액을 높이는 방법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저도 실은 전에 정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음악 부분의 선정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역할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칭찬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은 제가 명단을 보고 파악한 바로는 저희 음악 장르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피라미드의 중간 그룹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청년지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창작지원이나 문화재단 같은 데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하이퀄리티의 ○○○○○○○, ○○○○ 이런 분들이 개인도 타고 앙상블을 만들어서 다 가지고 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너무 훌륭하신 분과 청년이 아닌 중간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음악 부분은 대관료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30대 후반, 40대에 본인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무용이나 연극 같은 경우는 창작산실에서도 여태까지 역사가 있는데요. 국악과 음악은 그런 부분에서는 여태 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르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국악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르 중에서 저희 두 개 장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훈경 위원 : 말씀처럼 확실히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중복사업을 제외했을 때 늘 밀려있던 사각지대 예술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잠정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저희가 중복성을 제외하고 이런저런 규제를 뒀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반기에 한번 더 지켜보고 나면 이런 수치의 변화라든가 탈락한 사람들이 본인의 탈락 사유에 대해서 인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 하반기까지 지켜보면서 방향성이나 그런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반기까지 조금 지켜보고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38페이지 선정비율을 전체로, 연극/뮤지컬 같으면 신청건수대 선정건수로 비율을 내야 되는데요. 전체로 해서 낸 것이잖아요.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뮤지컬은 신청건수가 몇 건인데 몇 건이 했다. 연극하고 뮤지컬끼리 선정비율을 봐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헛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결국 장르 간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장르 간의 지원사업 건수가 다르잖아요.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장르별 총액지원을 모든 사업별로 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음악이나 전통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독 공연 요구가 많을 것이고요. 연극이나 뮤지컬, 무용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일단 공간만 있다고 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체지원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르 간 특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설계를 정교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기숙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47분이니까 4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추진결과에 대해서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데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해 주신 구문모 위원님과 배은주 위원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사진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말을 하고 편하게 들으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이고 저희 본 행사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등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3일간 총 36개 세션 및 4개의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본 총회행사이외에도 IFACCA 회원 행사들이 5월 25일에서 5월 27일에 열렸습니다.

참가결과는 총 94개국 406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인이 125명 30.7%, 외국인이 281명 69.2%였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 정책 자체가 문체부 주도의 탑다운으로 중앙에 어떠한 하나의 방침이 있었고 지역문화재단이라는 특이한 점이 있어서 지역의 목소리와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125명 중에 지역이 32%, 수도권이 68%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가 가까웠기 때문에 전체 406명 중에 아시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교류를 쉽게 할 수 없는 아프리카가 18%, 태평양 8%, 걸프 1%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정부나 공공이 50%, 민간이 20%, 기타가 13%입니다. 기타는 아마 현장예술가나 전문가들이 될 것 같고요. 국제기구 9%로 학계가 8%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일간 총 36개의 세션 중에 통합 7개, 병행세션이 29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연사는 62개국에 104명의 연사가 참여를 하였고요. 104명의 연사 중에 한국인은 19명으로 18.3%, 외국인은 85명에 81.7%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주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를 걸치다 보니까 주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나 참여구조 마련을 위해서 사전 토론문, 프로그램북, 총회 결과보고서 3종을 발간하였고요. 지금 총회 결과보고서는 영문이 오늘자로 나와서 이 내용은 국문이랑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서 8월에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세션들을 운영했습니다. 대담이라든지 월드카페, 워크숍, 패널토론, 청중토론 등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폭넓은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오전 통합세션은 한·영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을 하였고 통합세션의 통역은 한·영·서·불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

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국어와 국제수어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후 서베이를 진행했을 때 98.2%가 총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응답을 했고요. 93.6%가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적 구조에 대해서 만족했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총회의 본 프로그램과 별개로, 결국은 한국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문화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에 있어서 다양하게 선보이는데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역사, 경제, 사회적인 맥락들을 풀어서 그 공간에 입혀서 스토리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푸드앤베버리지 안에서 파인다이닝부터 스트리트푸드까지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 식재료들을 경험하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서베이에서도 문화프로그램의 잔치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하셨고요. 개막만찬은 95.1%로 어쨌든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셨습니다.

대외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언론이나 문화예술 플랫폼 내에 국내는 125건, 해외는 388건 총 513건의 보도나 게재 등이 되었습니다. 동아일보나 코리아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총 보도자료 5회를 배포했고 그중에 3회는 영문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 이외에도 후원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국내 10개 기관, 해외 5개 기관이 참여해서 총 15개의 금전적 후원이나 현물 후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참가자 주요 의견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IFACCA 측에서 사용하던 서베이 양식은 행사 자체에 대한 만족도였는데요. 그것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국문화예술계나 현장에 환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고 추가적인 질문지를 더해서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406명 중에 124명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59.1%가 한국과는 교류를 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을 하셔서 60% 이상이 한국을 처음 방문해 보신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를 통해서 한국과 한국 문화예술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 대해서 특이할 점이나 배울 점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문화예술부분을 지원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이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예술의 고유한 다양성과 창의성 등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통해서 얻은 개인적 혜택 1순위는 국제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하신 분의 89.1%가 총회를 통해 알게 된 국제 파트너들과 향후 협업, 연구, 교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주셨고요. 공식 세션 외 대화를 했거나 회의를 했던 네트워킹 횟수도 조사를 했는데요. 5회 정도가 46.4%, 6~10회가 26.4%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정량적 지표 말고도 정성적인 지표를 얻기 위해서 코멘트 부분들을 지금 분석 중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참석하셨던 분들, 연사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기획자나 예술감독, 예술가들, 학계분들을 모시고 합평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박스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행사는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했는데 결국 이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숙제로 남겨져서 그 부분들은 지금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과 연계하고 저희 기관의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후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밋 리포트가 영문으로 최종본이 나와서 이것들을 번역하는 작업이 있고요. 사업이 거의 1년 반에서 2년 동안 진행돼서 정산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부 결과보고 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몬디아컬트 2025라고 해서 전세계 문화장관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 장관회의가 유네스코 주최로 열리는데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고요. 문체부에서는 국제문화정책과에서 주관이고 아마 새로운 장관님이 오시면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

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의견보다는 코멘트인데요. 사실 나주에서 전체회의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하셔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냥 들을 때에 비해서 참여를 하니깐 어떤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참여자들이 문화행정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쉬운 게 등록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네트워크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 효과, 우리 기관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회의와 연을 맺어서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느낀 것은 참여하는 분들이 위원이 된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을 하는 기관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느라, 제가 말로는 짧은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는데요. 참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2차 추경예산 확정 공연예술·미술전시 관람료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강병주 문화누리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자료 41페이지입니다.

2025년 2차 추경예산이 새정부 들어서면서 긴급하게 추진되었는데요. 주요 편성 내용은 침체된 경기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함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재부와 문체부를 통해서 저희 문예진흥기금도 추경 편성에 참여해 줄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협의를 통해서 공연예술·미술전시 관람료지원 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작성했고 지난 6월 13일과 14일에 400차 위원회 전체회의에 서면 방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습니다.

편성 내용은 공연예술관람료지원 51억 원 그리고 미술전시관람료지원 49억 원으로 합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안이 다 합쳐져서 7월 5일 국회 의결에 본 사업은 원안 그대로 결정이 되어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의 특성이 긴급하게 빨리 추진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 사업이라서 사업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재원은 문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미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시행 주체가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지정되어서 기관에 재교부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주체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안을 서둘러 마련했고요. 예산이 교부되기 전에 이미 온라인 티켓 발행처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매처 공모를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응모된 예매처에 대한 심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5개의 티켓발행 예매처를 선정했습니다. 5군데는 티켓링크, 예스24, 인터파크, 멜론티켓 그리고 타임티켓 등 5개처를 결정해서 지

난 7월 18일에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억 원인데 이 중에 티켓관람료지원이 50억 원 그리고 사업운영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서 공연관람권을 정액 할인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만 원짜리 할인권을 50매 발급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1만 원짜리 할인권이 발행되다 보니까 적용대상은 1만 원 이상의 유료 개최 공연예술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적용 대상은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공연은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복합장르 등의 공연이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공연들이 대중 음악 콘서트, 대중무용, 팬클럽 미팅 등 공연들에 대해서는 할인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4페이지 하단과 45페이지의 추진체계와 추진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할인 적용 대상과 쿠폰 적용 제외 대상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정사업의 예산이다 보니까 회계연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티켓 발행과 관람일이 11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11월 말까지 사용한 공연티켓에 대해서 티켓 예매처에 정산을 12월 안에 다 완료해서 사용금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 한정되어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억 원에 대한 예산 세부 집행계획은 5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미술전시관람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49억 원이고요. 관람료지원비는 48억 원, 운영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람료지원사업의 할인티켓은 3,000원짜리 할인티켓을 160만매 발행해서 1인당 최대 10매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 전시는 5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의 전시와 아트페어 그리고 비엔날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업박람회 등 전시행사장에서 진행되는 다른 박람회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 추진방식이나 절차 등은 앞서 말씀드린 공연관람료지원 사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자세하게 할인 적용 대상과 할인 적용 제외대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억 원에 대한 자세한 예산 사용계획은 62페이지 예산 집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진체계를 보면 예정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문예위는 기부금 교부 및 정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위는 업무가 굉장히 단순한 거죠.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 저희 예술위원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예산을 교부하고 그다음에 추진절차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성기숙 위원 :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자료 초본의 4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할인 적용 대상이라고 해 놓고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 클래식, 한국음악, 국악, 무용,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통예술이라고 해서 국악만이 아니라 전통연희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명칭을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통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쿠폰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개인작품 발표회로 하는 공연도 쿠폰 적용 제외 대상이거든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예술가 개인이 공연하는 공연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나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작품 발표회는 학생들이 하는 개인공연입니다.

성기숙 위원 : 학생들의 공연작품은 제외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미상 해석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한번 문구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다음에 여기에서 할인 적용 대상에 해외단체가 국내 공연을 하는 건 해당되는지 여부와 장애인예술평영도 포함되는지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그 부분은 예매처를 통해서 올라오는 공연들은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해외라고 따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성기숙 위원 :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

성기숙 위원 : 그리고 예매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경에서 거의 추진과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예매처 5개 내외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예매처의 기준이랄까요. 예매처 5개 내외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매처에서 판매되는 공연과 전시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개 예매처 외에 다른 창구를 통해서 판매되는 콘텐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전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서 제한적인 시기 내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예매처 5개 내에 들지 않은 공연물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사용을 못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절차가 예경에서 예매처 등록신청을 받겠죠?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매처는 이미 5군데를 아까 말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을 1억 원 내에서 1만장 배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

배은주 위원 : 그러면 모두예술극장이 예매처에 등록이 현재 되어 있나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그렇죠. 모두예술극장은 5개의 예매처에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적용 대상 공연에 뮤지컬이 들어가 있는데요. 뮤지컬은 라이선스 뮤지컬과 창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 이것도 5개 예매처에서 판매되는 뮤지컬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대극장, 소극장.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라이선스하고 창작을 구분하지 않고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중음악 그러니까 콘서트는 제외가 되는데요. 사실 라이선스는 상업 뮤지컬이잖아요. 상업뮤지컬은 되고 대중음악 콘서트는 안 되는 건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요. 창작 뮤지컬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이 부분은 저희가 예술경영지원센터하고 제외를 할 것인지 포함해서 판매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관련해서 협의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십사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쿠폰을 하는 게 결국은 순수예술 창작자와 국민의 문화향유 그러니까 창작자와 수용자 동시에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창작뮤지컬 위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화가 가능한, 자본창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은 조금 제외가 되고 순수예술 창작자들한테 지원제도가 실효성 있게 혜택이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경하고 협의하실 때 이런 것도 논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훈경 위원 :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 그냥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말씀 없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분명히 기획의도에는 공연예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료관객의 증대를 한다는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상업 뮤지컬이 포함되면 역대 우리 문화패스카드나 누리카드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대다수 뮤지컬이나 상업극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100% 거의 다 뮤지컬로 몰릴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공연예술시장에 어떤 활성화를 줄 수 있을지? 순수예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거든요. 사실 더 애매모호하고 더 사각지대로 몰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셔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경과 얘기하실 때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도 공공기관 법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2024년도 공공기관 법정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해마다 다르지만 대략 총 10가지의 법정평가를 수검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작년에는 크게 3가지 평가를 수검했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영실적평가입니다.

지난달 결과가 발표된 경영실적평가는 기재부나 주무부처로부터 평가를 수검 받는데 우리 기관은 2019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문체부 산하에 40개 공공기관들과 함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등 2개의 범주에 대해서 표에 나와 있는 28개 지표를 계량과 비계량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경영관리에서는 전략, 리더십, 일자리, 윤리인권, 재무예산, 조직인사, 보수·복리 등의 지표들이 있고요. 사업에서는 예술창작, 문화향유, 예술가치확산까지 거의 우리 기관의 모든 것에 대한 경영측면과 사업측면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평가 같은 경우 수검 자체가 꽤 부담이 되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연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관도 상당 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 평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부터 30일 정도 집중 시간을 들여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실사 수검 등을 거쳐서 지난달 전체회의 시간에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종합등급은 5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래의 연도별 예술위원회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왔는데 당시 같은 분과에서 평가를 받던 16개 기관 중에서 15번째로 거의 꼴등을 했던 시기부터 조금씩 올라와서 2020년에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았고요. 이제는 우리 기관의 평가체계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공공기관들도 벤치마킹 하려고 할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입니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정부 예산이나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집행효율성 등을 평가합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 우리 기관은 5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가 3건, 보통이 2건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적용되는 것은 ‘미흡’이 나오면 차년도 예산편성 시에 의무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기관에 미흡 사업이 없어서 이 평가 결과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불임2가 있는데 올해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받은 16개 문체부 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첫 번째 1등 순위를 받은 것이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사업이고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우리 기관의 문예기금 사업들이고요. 11번째에 예술의 관광자원화가 있는데 사실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타 기관으로 재교부를 하는 거라서 실제 우리 기관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연장평가입니다.

보조사업연장평가는 매년 받기는 하지만 각 세부사업별로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보통 1개의 세부사업

이 3년 주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는 5개의 세부사업을 평가 받았고 사업운영개선이 1건, 일정수준 감축 및 사업운영 개선이 4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타 기관까지 봤을 때 예술 분야는 총 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문화예술지원사업만 가장 낮은 순위인 사업운영 개선이 나왔고 나머지는 모든 사업이 일정수준 감축 또는 높은수준 감축이 나왔습니다.

사실 보조사업연장평가에 따라서 차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 조정이 되는데 실제로 해당 평가는 참고로 활용될 뿐이고 예산심의는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에 따라서 일정수준 감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의 사업에서는 증액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 내년 초에 있을 평가수검을 대비할 텐데 잘 준비해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의견보다도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행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항상 케이스 별로 이견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매해 어려움이 있고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자료에서 보면서 “우리가 A를 받았네.” 싶어서 기관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했고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저도 같은 맥락에서 사무처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 같이 자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5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건데요. 평가결과 의 세부항목별 보충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참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공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평가 결과치가 2026년도 사업설계에 반영, 반영이라고 함은 예산 증액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우수’인 지원사업도 있고 ‘보통’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한 해당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에 인센티브가 있는지? 예산 증액이라든가 인력 증원을 해 준다거나 식사라도 한번 사신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의 담당직원들의 이런 결과치가 직무평가에 반영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경영실적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따라서 실제 성과급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미흡’ 등급 이하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연장평가가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집행률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 기관의 직원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남김없이 예산이 예술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상위 두 번째부터 6위까지 처리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집행을 최대한 끌어올렸다는 것인데요. 작년까지는 단순하게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만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도 조기집행 그리고 하반기에는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고 해당 팀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위원장님이 경영평가보고서를 쓸 때 TF를 구성해서 쓰는데 밥도 많이 사시고요. 커피차를 배치하시는 등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성기숙 위원 : 예산이 안 되면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라도 푸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제 돈을 쓰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하고요. 모든 게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사업별로 코멘트를 해 주시고 관여를 해 주셨고 직원들이 이것을 잘 받들어서 충실히 해 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 해외로부터 많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서 우리 위원회를 찾아오고 해외에서 문화컨퍼런스가 있거나 세미나가 있으면 우리 기관을 초청해요. 모든 비용을 거기에서 내면서 하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한 달 전에는 영국에서 조차 벤치마킹을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영국 Arts Council을 벤치마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꾸로 영국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문화행정을 하는 가장 최일선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든 최고의 문화행정가들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질만하고 또 세계 각국에서 평가를 하니깐요. 저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잘 짚어주시고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보고안건은 경영전략소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회의이고 회의안건은 중장기 경영전략이고요. 작년에 수립을 했고 당분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새정부가 출범을 해서 여기에 맞게 중장기 경영전략도 롤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경영전략을 손질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67쪽으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만든 비전이나 핵심가치가 그대로 가져가되 전략체계, 목표나 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앞으로 새정부 공약이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과제가 확정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녹여낼 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무처에서 갖고 온 안인데 신규사업, 증액사업도 투트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비전-링크 공모전도 적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데 활용할 방안으로 써보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개선해 나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치 않은 사업들은 폐지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 보자. 그리고 예술위가 갖고 가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데이터 쪽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 그런 것들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NCAS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연말까지 일정을 두고 시행하면서 작년에 했던 식으로 워킹그룹 형태로 진행을 하고 이 내용을 경영전략소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최종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해외에서 대한민국 지원체계에 대해서, 특히 정부 지원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혹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짚어 주셨는데 데이터 기반 정책.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 자료까지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데이터화하는 과정.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 사업설계를 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면 그런 통계치를 통해서 제시해 주면서 설명을 해 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고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문모 위원님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무처 연구팀에서도 보다 더 강조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신 ○○○ 박사도 그렇고 ○○○ 차장님도 그렇고 금년 초부터 계속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성범 팀장님은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통계를 쪽 보고 있고요. 실무진 같은 경우도 업무를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갖춰져야 할 게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르별로, 사업별로 통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뭔가를 발표하기에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잘 확보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시대에서 가장 갖추어야 될 것이 우리 예술위가 갖고 있는 장점은 통계적인 수치보다 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요. 지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웹진도 그렇고요. 그 내용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외부에 발신하는 일이 남아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하는데 실무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까지의 타겟을 삼아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조사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그 일을 집행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금년이 끝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동안 통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플랫폼이 다 분산되어 있었고 거기에 입력하는 입력값이 다 달랐고요. 그런데 이제 통합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엔카스와 연동시켜서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AI가 발달되면서 AI를 활용하면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까지 정성, 정량까지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AI교육도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면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회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리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본 안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하고요. 7월 22일에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안인데요. 통계와 수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도 그날 논의가 많이 되었거든요. 만약 구문모 위원님이 주도하셔서 하신다면 그날 논의된 부분까지 포괄하고 반영해서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차피 소위원회가 12월까지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12월 안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연구에 대한 목적달성까지는 가기가 어렵고요. 어차피 기본적인 연구의 토대마련, 틀을 마련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 싶어서 기반을 만들고 토대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하셔서 결과까지 내도록 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보고안건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배은주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저희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7월 2일 소위원회 위원님과 사무처 직원 등 12명이 함께 회의를 진행했구요. 제가 의사진행을 했던 관계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안건으로는 문화예술생태계 연구 경과 및 추진계획(안)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예술인 활동 현황에 대한 공유를 회의안건으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문화예술생태계 연구 결과 추진계획(안)을 김성범 기획조정팀장과 ○○○ 책임연구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정책 제안 변경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3년 차에 정책 개선안을 도출 예정이었는데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2년 차에 장르별 지원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는 내용으로 계획안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진행 방식 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성향에 맞지 않도록 연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앞으로 장르 간 연구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에서 자료 공유나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 안건으로는 국내 장애예술인 활동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요. 2025년도 4월에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전문 일자리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박신의 교수님께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일자리 개념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접근에 대한 발제를 제가 발표했는데요. 이중에 나온 의견으로는 장애예술인을 전문예술인군으로 양성시키는 프로그램과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느냐 하면, “예술단체가 장애예술인을 섭외할 수 있는 창구,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그런 활성화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장애예술인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접근성 공연을 제작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관람객 방문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앞으로 장애인들이 공연을 자주 경험할 기회부터 확대하고자 사무처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일정에서는 장르별 현장 소통계획을 검토한 후에 의사 확인과 향후 일정들을 다시 모여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필요시에는 안건논의나 문화예술생태계연구에 대한 경과를 중간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향후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현장간담회에 특정 장르가 아닌 모든 장르를 포함해서 현장간담회를 했으면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에 저희가 보고안건 자체로 전체회의 자료로 올릴 때는 굳이 이름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회의자료로만 가지고 있고 경영전략소위원회처럼 주요 내용만 정리해서 올리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성기숙 위원 : 다른 분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승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경영전략소위원회는 통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셨고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위원별 발언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위원별 발언에서 제 발언이 누락되었거나 변질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가 7월 2일에 배은주 위원님이 진행을 아주 원활하게 잘 하셔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 전후로 진행된 것. 저는 무용 분야 생태계조사 연구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련 사무처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계획으로 각 예술장르의 생태계조사연구가 설계돼서 저는 사실 1차년도 진행될 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방향성과 설문조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저희 무용 분야는 2025년 3월 19일에 현장업무보고 및 토론회가 있었고 이때 모든 장르가 생태계연구조사를 담당하시는 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용 분야는 진도가 미비해서 사무처 판단에 의거해서 그냥 패널의 한분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생태계연구를 2년으로 해서 올해 종료하자는 의견을 사무처에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원래 이게 3년으로 설계가 되었으니까 3년으로 마감할 해서, 제가 그때 같이 의견을 드렸던 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여러 장르 생태계조사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다른 기관과 달리 밀도 있는, 완성도 있는 생태계조사 결과치가 나와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문체부나 다른 유관기관에도 효과성 있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후에 2년으로 마감되기로 했는지? 제가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3년으로 하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중간에 무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임 ○○○ 위원님 때 연구자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원님이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연구자 역시도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하신 분이 선정이 돼서 무용분야 생태계연구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간에 사무처에서 연구조사자의 변경 등을 물어 오셔서 이것은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자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분을 투입해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 조금 더 숙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계연구조사가 당초 계획처럼 3년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후로 사무처에서 저한테 전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용 분야 생태계연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왜 변경을 하는 건가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때 소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것이고요. 지금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현재 사업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었을 때 실제 이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202년에 마감되면 빨라야 2027년 사업예산부터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3년차로 해서 2026년 말에 사업결과가 나오면 실제 이 예산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2028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연구를 하는 것의 목적상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현재 생태계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올해 말에 도출하고 그걸.

정병국 위원장 : 2년 동안 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요. 최소 3년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이훈경 위원 : 그런데 그날 회의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성기숙 위원님께서 3년을 제안하셨지만 3년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장르별로 2년으로 짓고자 한, 연극도 그렇고 전통도 그렇고 박사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올해 안에 정리해야 내후년에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가자고 저희는 얘기를 모았기 때문에 3년으로 가자고 정리가 된 적은 없습니다. 안전으로 주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무용 분야는 3년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전담심의관제를 하면서 생태계 조사에 쉽게 접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그래서 장르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성기숙 위원님께 이후에 별도로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으나 잘 되지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뵙고 상의를 드린 다음에 무용 분야는 어떻게 결정할지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 연구원님과 김성범 팀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숙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훈경 위원님 저희가 7월 2일 창작소통소위원회가 열렸고 그 후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사무처와 저하고 상호간에요.

이훈경 위원 : 무용 쪽이죠?

성기숙 위원 : 예. 그리고 7월 17일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처에 자세한 이메일도 보냈고 지금 소통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 전달 받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훈경 위원님께서 모르는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가능하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 주시고요. 참여하지 않은 여타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소위원들이 여기까지 와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회의 자체의 진행상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전에 논의된 사항은 그 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들 간에 있었던 부분들은 정상시에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초본을 가지고 있는 65쪽에 2년차 장르별 지원정책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3년차는 도출된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회의 때 논의된 것을 포함해서 지금 언급한 것이고요. 제 말씀에 대해서 조금 해석상 왜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17시 00분 퇴장)

정병국 위원장 :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은 조금 더 해당 사안들을 소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건데요. 만약 그렇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가 된다고 하면 따로 소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고 계속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고요.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각 소위원회에 참여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가 되면 타 위원님들도 시간이, 나름대로 시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해는 하지 마십시오.

(장미진 위원 17시 02분 퇴장)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치를 가지고 보완적으로 후속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김성범 팀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위원님께 따로 연락해서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일곱 번째 보고안건은 아르코미술관장 임용 절차에 대해서 이재륜 인사소통팀장이 온라인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륜 인사소통팀장 : 아르코미술관장 임용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해당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 보고를 드리는 사유는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 관장의 의원 사직에 따른 미술관장 공석 발생입니다.

과거부터 위원님들께서 해당 채용에 대해서는 보신 적이 없고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될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르코미술관장의 경우에는 예술극장장과 함께 개방형 계약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계약직으로의 운영 추진배경은 기존에는 2019년까지 예술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예술극장, 미술관을 운영 총괄 하면서 예술공간운영본부라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예술계 현장 참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처 주요 직위를 예술현장에 개방할 것.” 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8년 아르코혁신TF 조직분야 혁신 의제로 예술전문성 요구 분야의 개방형 직위 도입 운영을 제시하였고 2020년초 극장운영부, 무대기술부를 포함한 예술극장과 미술관을 예술공간운영본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개방형 계약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요. 과거 2020년 미술관장으로 채용을 진행했던 임용절차에 대한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최초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술위원회 위원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채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채용 과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무처 직원의 경우 채용할 때는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 절차를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였는데요. 예술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채용 과정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채용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채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당시 내부로는 위원장, 사무처장, 예술위 해당 장르 위원으로 구성하였고요. 외부 위원의 경우에는 예술위 해당 장르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채용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계획의 검토 및 확정을 일차적으로 진행하였고요. 확정 과정에서 자격기준, 전형방법 및 절차, 선발배수 등 과락기준 등을 모두 복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형 단계별 외부 심사위원 풀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결정에 대해서 2020년에는 전형별로 내부위원 사무처장 1인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채용계획을 가지고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채용을 진행하였는데요. 채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채용과정에 대한 결정사항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역할로 하였고 그 이후 전형별 절차 운영에 대해서는 당시 인사역할을 담당할 소

관부서인 인재성장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채용 진행절차로는 채용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지원접수, 전형 단계별 채용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채용 결과보고 및 최종 임용을 2020년 4월에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대해 특별한 사유나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과거 2020년에 진행되었던 절차대로 준용해서 채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번입니다.

2025년도 임용 개요 및 진행 경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존 아르코미술관장이었던 ○○○ 관장의 의원사직에 따른 미술관장 공석 발생으로 채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용 방식은 과거 임용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자 하며 인사위원회, 채용위원회, 채용절차(모집공고 및 서류, 면접)를 진행하고 최종 임용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 경과입니다.

현재 제18차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을 통해 채용위원회에 채용 절차와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인사위원회는 7월 7일 개최 그리고 7월 10일 결과보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채용은 우선 계약직인만큼 위원회 채용계획에 따라서 주무부처와 채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되도록 규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5일에 문화체육관광부로 해당 채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일차적으로 공문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7월 17일과 7월 22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 예술정책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다소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채용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2020년 사례를 적용하여 내부 위원으로 위원장님, 사무처장님 그리고 시각장르위원장님 그리고 시각장르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은 외부 위원 2명으로 채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채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채용 절차를 이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임기 중간에 어쨌든 아쉽게도 가시게 돼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에 ○○○ 관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추가로 새로운 신입 미술관장님 임용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중에 서면과 면접심사위원들을 뽑으실 거잖아요. 그때 저희가 아르코미술관장님의 향후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미술관장님 후보로 위촉되시는 분이시면 미술계에서 대부분 인지도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력 있는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고를 내시기 전·후에 이분이 임용되시면 향후 임기 동안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서 서류심사나 면접심사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이번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공모할 때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당연하고요. 해당 위원이시기 때문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채용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채용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이런 기본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륜 인사소통팀장 :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성기숙 위원 : ○○○ 관장님이 중간에 공석이 되게 되었는데 열심히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회의 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잠시 이석을 했다가 와서 앞에 듣지 못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의 공간운영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아르코미술관이 있고 아르코예술극장 그래서 미술관장님과 아르코극장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채용 관련해서 규정과 지침이 있는 것인지를 여쭙고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부에서 위원장, 사무처장, 예술위 해당장르 위원이라고 하면 김미라 위원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내부 위원 3명과 외부의 해당장르 추천을 받아서 2명으로 총 5명으로 채용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는데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를 첫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르코예술극장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르코예술극장장님을 신규로 채용할 때도 지금 아르코미술관장님을 채용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가는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재륜 인사소통팀장 :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방형 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위원회 직원의 채용이고 해당 내용은 기관 내에 있는 공정채용운영지침에 따라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정채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본 채용위원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혹은 별도의 채용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본 내용의 형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현재 2020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술극장장님의 임기가 내년 2월 첫 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위원장님의 평가 등을 통해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임기가 종료되어서 예술극장장님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인사소통팀 내에서의 방향은 본 채용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숙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덟 번째 보고안건은 비상임위원 지원사업 참관(모니터링)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난 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결과를 반영해서 한번 다시 정리한 안을 정확하게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난달에 논의하실 때 기존에 사무처에서 행정적으로 포괄적으로 모니터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관과 모니터링으로 나눠달라고 요청하셨고요. 그 개념 정리를 다시 해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전담심의제에 참여하셔서 현재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과는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달 논의 후에 공유해 드렸던 현황 엑셀 자료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그 자료는 정말 논의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그 내용에 포함된 것 중에서는 모니터링만 향후에 관리할 예정이고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공연을 관람하신 건은 관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관리를 해 왔던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먼저 그 사항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사업 참관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번 전체회의자료 뒤페이지에도 안내된 대로 지원사업 참관 안내라고 해서 팀별 이번 달 공연일정과 전시일정을 정리해 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각 팀장에게 연락하셔서 참관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구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공연이나 전시관람 희망을 밝히시면 사무처에서는 일단 참관으로 보고 위원님들께 지원을 해 드리게 되고요. 다만, 희망의사를 밝히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나는 모니터링으로 서면평가서를 작성하겠다.” 라고 하신 경우 혹은 관람하신 이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사무처에 전달하고 싶다.” 라고 의견을 밝히신 경우에도 사무처에서 해당 모니터링 평가서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관의 경우에는 관람지원만 해 드리고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관람권 이외에 실제 평가사례비와 비수도권의 경우 여비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서면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서면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양식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내용은 사업별로 전담심의위원님들 중심으로 된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리해서 사무처에서 참고용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출해 주시는 모든 문서는 혹여나 국회나 관리기관의 자료 요청 시에는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사례비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사업별 전담심의위원님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위원들 간 사례비 관리가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과 위원님들께 지원해 드리는 예산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모니터링에 나가신다고 해서 다른 쪽의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영향력은 서로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달에도 여러 의견을 주셨지만 사무처에서 검토했을 때 특정 대상만 모니터링으로 정한다거나 참여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향후에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각 팀이나 저희 팀에 질의해 주셨던 사항을 기타로 정리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께서 참여 횟수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소관 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은 현재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이고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은 사업평가가 용역으로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가용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전체 9,790만 원으로 용역이 계약된 상태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과업을 정할 때 적어도 1개의 축제에 대해서 공연을 2번 정도 보시는 것으로 편성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은 예를 들어서 7월에 예술가의집에서 하우스콘서트에 매일 있었는데요. 매일 있는 공연을 30번 보셔도 지금 드릴 수 있는 예산은 공연을 2번 본 정도의 예산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재 무용 분야 전담심의관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 ○○○ 전문위원께서 무용분야 전담심의관 역할을 해 주셨는데 1월 1일자로 임금피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까지 진행된 창작주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심의까지 참여 후에 후임자인 ○○○ 심의관께서 이후 사업에 참여하시고 전담심의관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평가모니터링을 전담심의위원 중심으로 운영할 때 해당 사업의 전담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까지 운영한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 심의관님 같은 경우에는 ○○○ 전문위원의 직무를 인계받아서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해당 창작주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평가위원으로까지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제가 발언하는데 많이 조심스럽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큰 소리로 질책을 하실까 염려가 돼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성기숙 위원 : 제가 사실은 401차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전담심의제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충분히 해놓은 게 있어서 여기에서 재론은 하지 않겠는데요. 우리 김지영 지원총괄팀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과 미적용 사업을 총괄적으로 비상임위원들이 평가모니터링을 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전담심의제 적용사업 그다음에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제 심의참여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2024년 9월, 10월, 11월 내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고요. 규정 지침도 개정했고 의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심의위원이라고 함은 내부의 비상임위원 또 전담심의관 그다음에 외부 심의후보단에서 사무처와 비상임위원이 1에서 1.5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1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위촉장을 받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담심의제 적용사업에 한해서는 전담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에 한해서 평가모니터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2024년에 일반사업에 대해서 평가모니터링을 한다는 고지와 안내를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지원총괄팀에서 보내주신 문서를 보면 2024년에 우리 비상임위원의 일부 분들이 전담심의제.....그때는 아니겠죠. 그때는 일반사업에 대해서 평가모니터링에 참여하셨고 평가비가 수령된 게 도표 문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하고 안내를 받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 전담심의관 참여 문제는 사실 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해당 분야 여론수렴도 직무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무용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창작주체였나요? 정창호 팀장님과 같이 공연도 관람했습니다만, 가족에 해당되는 분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전담심의관 무용 분야 위원이 평가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에도 다 나오고 있고 공연자료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구두로도 했고 이메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전담심의제라는 것은 심의, 의결, 평가모니터링. 특히 심의와 평가모니터링은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가서 전문성과 책임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희석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답변하실 게 있어요? 따로 없어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추가로 정보를 드릴 게 위원회 전체회의 차원에서는 작년 2024년도 10월 이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위원회 회의 때 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축제행사에 대해서 공유가 너무 안 된다.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24년 10월부터는 매달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혹시 관람을 원하시거나 평가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팀별로 연락을 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일단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담심의위원으로서 모니터를 하는 것과 비상임위원이 모니터를 할 경우하고 일반관객이 모니터를 하는 것은 다 다르다고 봐요. 전담심의제도를 우리 도입하게 된 것은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심사와 그 이후의 평가까지, 심사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니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

반관객이나 비상임위원들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관객적인 입장에서 또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또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모니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익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설계할 때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 지금 전담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평가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 지원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지원사업에서 약 20% 내에서 우수한 것은 자연스럽게 청년도약사업으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이런 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비상임위원들이 하시는 평가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 전담심의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때 제척사유가 있으면 제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모니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되겠죠. 점수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전담심의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표정을 보니까 매번 피로감을 느끼셔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싶습니다.

우선 정창호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안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담심의 이외의 사업이라도 2024년도 평가모니터링에 대해서 안내나 공지가 없었고요. 그러려면 회의자료 문건에 그것이 적시되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작년 회의자료 전체를 복기했습니다. 그런 안내가 전혀 없었고요. 또 저와 말씀을 나눌 때는 정창호 팀장님이나 사무처분들이 공감하는 지점이 많은데 회의자료나 문서로 나올 때는 그게 달라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초본으로 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자료 초본의 69쪽을 보면 맨 하단에 무용 분야 전담심의관 관련해서 “전담심의관이 인계받아 창작주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 예정.”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02차 문예위 전체회의는 2025년 7월 25일자고 오늘 전체회의 자료에 “평가위원으로 활동 예정.” 이라고 하면 향후에 활동할 예정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미 ○○○ 전담심의관은 전담심의제 적용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는 나중에 후속으로 해석될 때 혼란을 가중시키고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 왜곡될 소지가 많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무처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서승미 위원 : 개인적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장르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회의 전에 미리 조율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회의 때 했던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전체회의 때는 정말 전체가 다 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서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무용 분야의 전담심의관인 ○○○ 심의관님 관련해서는 제가 꺼낸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분명하게 무용 분야 전담심의관 언급이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맞죠?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전체회의를 할 때 또는 소위원회라든가 전담심의제 관련 TF회의를 할 때 앞에 계신 서승미 위원님께서 과도하게 무용장르. 전담심의 무용 분야로 저는 공식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전문가로 검증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서승미 위원님은 작년에도 무용 분야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 마치 불공정이 과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서로를 이해해 주시고요. 사무처에서는 이 보고서를 쓸 때 하나하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 이런 부분들은 회의를 제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시죠.

이훈경 위원 :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한테 계속 메일로 속기록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서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속기록은 오픈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오픈이 안 되어 있는지와 왜 오픈이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되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본인 장르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해외출장 사례까지 상세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비상임위원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해외출장 상세 내역을 다 요청하셔도 괜찮은 것인지? 그게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 오픈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마지막에 말씀하신 해외출장 관련해서는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속기록의 공개 건 같은 경우에는 속기록은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에 속기록이 나오면 전체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속기록 같은 경우에는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 있어서 올해 4월 이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올해 4월 전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나요? 오픈되어 있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것도 일부 속기록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작년 말부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공개가 왜 안 되나요?

이훈경 위원 : 저희는 서명을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서명을 안 하신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왜 서명들을 안 하시죠? 누가 안 하셨나요?

성기숙 위원 : 우리 이훈경 위원님이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건 제가 정리해 드리고 일단 속기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속기록은 전체 위원님이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내가 발언한 부분들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를 보고 이상이 없으면 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보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되고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제때 공개하지 않으면 국회나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로바로 시간을 내서 속기록 사인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만약 속기록 내용이 내가 발언한 것과 이상이 있다고 하면 사무처에 요구하셔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정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규정도 다 봤어요. 비상임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는데 딱히 어떤 절차는 없으나 위원장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관점에서 우리 비상임위원님들이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상임위원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사안이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규제가 있지 않은 사안들은 가능하면 다 지원을 해 드리라고 사무처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개된 정보들은 가능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필요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청을 하시는 절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자료는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만약 공개했는데, 우리 비상임위원님들께 공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사후 책임.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 공개가 되었을 때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처에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절차를 만들자고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다 지원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노조가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비대위원으로 조강주 위원이 참여를 해서 있는데 말씀하실 게 있나요?

조강주 비대위원장 : 예, 발언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시죠.

조강주 비대위원장 :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노조 신입 집행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비대위원 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노조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5월 이후 전체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관을 하지 않다가 이번 전체회의부터 지난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대위원이 노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비대위원 중 1인이 참관을 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회의에 신입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비대위원 중 1인이 참관하게 될 것임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와서 자리에 배부해 드렸는데요. 특히 참관을 하면서 안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비상임위원님들의 자료요구 관련해서 현안을 공론화 드리고 조합원들의 고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기 위원회 체제 이후에 비상임위원의 요구 자료로 인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무분별하게 요청이 오고 비생산적인 자료 업무에 대응하느라 초과 근무까지 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고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측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요청 내역들의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요. 비대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회의에 공유

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4가지인데요. 저희는 이것이 명백하게 비상임위원의 거의 전횡에 가까운 행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의 상단 표를 보시면 과도한 자료 요구의 빈도 문제입니다.

8기 위원회 이후에 위원님들 별로 자료요구 건수를 집계해 보니 특정 위원님의 자료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료요구의 빈도만 높은 게 아니라 2페이지 하단에 보시듯이 5년치, 10년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고 이것이 다양한 자료들을 하루에 합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담당자들에게는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신날짜까지 2~3일 정도로 짧게 지정하셔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 합원들에게는 굉장히 고충이 된다는 점을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료요구와 방식이나 경로 등의 절차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 방식과 관련 해서도 메일이나 구두, 유선, 문자 등 다양한 경로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요청되는 경우도 많고요. 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고 개별 팀장이나 담당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사례들도 빈번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표의 내용과 같이 직원 개인의 경력자료나 노동조합에 관한 자료요구 그리고 이사회를 견제해야 될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에게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부서평가를 개입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이사회 심의·의결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요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 스스로 책임 있는 자료를 요구 할 수 있게 자료요청서 양식을 만들어서 적절한 절차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도 책임 있게 이 자료가 왜 필요한지도 적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무처 직원들에게 전달되어서 “이 자료가 위원회 의결안건에 굉장히 필요하구나.” 라는 게 공감인 된다고 하면 고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최소 작성일을 반드시 보장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료의 보관과 폐기와 관련된 장치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사이기 때문에 민법상 광범위하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 중에는 기관의 리스키한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보완이나 절차 없이 나중에 악용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건 심의·의결에 상당히 불필요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사무처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비상임위원님들께서 남발하지 않도록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의 설명은 다 마쳤고 저도 직원으로서 위원님들과 같이 업무를 하면서 많은 자료 요청을 받습니다. 한 번도 불편하다고 여겼던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정도가 지나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공유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회와 사무처가 기능상 상하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료 요청에 대한 대응도 전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의 건수나 수치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고충들이 저희 노조를 통해서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발언이나 전달받는 방식 그리고 어떤 언행이랄 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회 진행 중에, 중간중간에 올려드린 자료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하시면서 언급하신 발언을 제가 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지만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조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조의 대표로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는지를 되짚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께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오늘 저희의 자료와 발언을 무겁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된다거나 만족할만한 수준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할 것이고 비상임위원들의 자료 요구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행동 강령을 내려서 보이콧 하도록 하는 것까지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겁게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절차가 마련되면 그동안 없었던 레드테이프가 생길 수 있고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절차를 통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그리고 조합원들이 고충을 해소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장으로서 심히 저도 유감입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최대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노조원들에게 불편함과 과중한 업무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보다 더 우리 사측하고 노조 측이 노조 측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더 논의해 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논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활동하시는데 저촉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이것은 가능하면, 저는 우리 사측을 대표하는 입장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을 보장해 드리고 도와 드려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사안별로 계속 같이 하게 되면 저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노조하고 사측을 대표해서 논의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불쾌한 점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안을 만들고요. 이것은 개별 위원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운명을 잘못된 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전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존함이 혹시?

정병국 위원장 : 존함을 할 게 아니라 비대위원으로.

성기숙 위원 : 비대위원장님이신데 노조위원장님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신거죠.

조강주 비대위원장 : 예. 대의원회를 통해서 비대위원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개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노조를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사측 대표와 노조 측의 대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그래서 저는 회의장에 참석하고 이것을 아까 전달해 주셔서 처음 뵙는 분이었고 회의 중간중간에 이 내용을 봤거든요. 우선 노동조합에서 이런 문건을 만드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런 제안도 향후 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로서 문화예술위원의 의무와 역할, 책무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문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 불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노고가 크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제가 마침 오늘 문화예술위원회 업무편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위원으로 취임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때 주신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노조하고 대화는 사측 대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그렇게 되면, 개인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한테 맡겨 주시고요.

성기숙 위원 :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정리를 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이 문서를 보면 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제가 이것을 중간중간에 봤을 때는 심의·의결과 관련된 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직무로 노조 측에서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위원회 직무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 비상임위원에 대해서 직무와 권한, 비상임위원의 권한과 책임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영에 관한 것, 비상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권도 있고요. 청취권과 해임 요구권, 감사요구권, 자료 요구권이 다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다시 해외의 출장보고서를 요청하면서 문예위 사무처에서 제가 제안을 주셔서 다시 이 자료를 보니까 비상임위원의 주요 점검사항이라고 해서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결산에 관한 것, 감사에 관한 것, 국정감사에 관한 것, 자산운영에 관한 것, 회계감사 등 굉장히 많은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상임위원 직무수행 매뉴얼도 있고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상임위원의 역할과 직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심의·의결이 제한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사무처 노조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향후 논의를 통해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은 문예위의 건강한 조직을 증명하는 거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비상임위원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예. 정리를 하자면 문화예술위원회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노조 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쨌든 우리 노조의 의견. 하여튼 간에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단 접수를 하고요. 향후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성기숙 위원 :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무용분야 지원 관련인데요. 2025년 선정된 단체의 세대 그리고 장르, 지역, 성별 부분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는지를 요청 드리고요. 중복지원이나 다년지원. 만약 어렵다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비상임위원을 하고 1년이 되어 가는데 나주에 방문한다고 하다가 계속 지연이 돼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초·중순경에 나주 문화예술위원회를 방문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임위원 중에 안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 동행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가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본부인데 1년 동안 못 가봐서 한번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을 때 그 공간의 안내나 문화예술위원회의 간단한 보고, 인력구조 등은 어떤 부서에서 하시는지? 제가 이 부분은 어느 분과 진행을 하면 될지 문의를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서도 되고요. 성 위원님은 몇 차례 내려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안 내려오셔서 못한 적이 있잖아요. 몇 차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도 했어요.

성기숙 위원 : 몇 차례가 아니고요. 2024년 12월 전체회의 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고요. 언제든지 가시면 기조팀에서 안내를 할 겁니다.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제40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회의 종료)